



로즈밸리, 왕궁면 착한기업 24호점 릴레이 참여

왕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나눔에 동참한 로즈밸리를 착한기업 24호점으로 선정하고 나눔 현판을 전달했다.

왕궁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유)로즈밸리는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국형 식물공장의 선진 모델 농가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자 지정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원씩 지정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정병두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많은 나눔이 모여 주변 이웃들에게 큰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훈 왕궁면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역의 이웃을 위해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신 정병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면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원 이상 기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부한 성금은 왕궁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생계지원, 긴급구호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익산=이득훈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사랑가득 영양가득 반찬 나눔봉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의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5가구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황승일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이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기쁘고, 나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는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교육공동체 '아중리맘', 엄마의 밥상에 성금 100만원 기탁

전주시는 은두레공동체인 아중리맘 공동체 (대표 최춘경)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아중리맘 공동체가 지난해 전주시 '선미촌 리빙랩' 사업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춘경 아중리맘 공동체 대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모여 결성한 공동체인 아중리맘 공동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은두레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유경제 촉진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 공동체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사업에 참여해 선미촌 도시재생에 기여했으며, '공유경제 시범



사업에도 참여해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능 나눔과 공유카페 운영을 위한 마을 주민 버리스타 교육 및 운영 등에도 힘써왔다. /김윤상 기자

김용식 전주동중 총동문화 회장, 모교에 장학금 기탁

전주동중학교 총동문화회 회장 김용식(71)은 22일 졸업식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

김용식 전주동중학교 총동문화회 회장이 최근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제71회 전주동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유서 깊은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졸업은 인생에 있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축복의 꽃다발을 안고 새 출발의 희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러분들을 다 시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김 회장은 모교 내 어느 교실에서 학생·교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용식 회장과 함께 명예회장을 지내고 있는 (주)팔복시스템 장대우 대표도 이날 졸업식에서 모교 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 모교에 7,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총동문화회는 이날 졸업식에서 성금 기탁과 함께, 이번엔 졸업하게 된 김태범·김수준 군 등 전교소년체전 레슬링 부 입상자들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71회 졸업식을 끝으로, 24일 퇴임을 앞둔 김지만 교장은 "교장에 부임하는 동안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눈빛을 바라보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외국어교육센터, 상반기 방과 후 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 2022년 상반기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어 및 제2외국어(5개)에 대한 몰입형 언어 학습을 위한 방과 후 과정이 관내 초·중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운영된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언어 숙련도에 맞춘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어 과정은 학습자 레벨 테스트를 통해 초급 Phonics 3개 반과 중급 영어 1개 반, 시민영어 1개 반이 개설된다. 제2외국어 과정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언어 과정이 제공되며, 언어별로 각각 기초반과 Level-up(진급반)이 구성돼 진행된다. 특히, 제2외국어 Level-up(진급반)은 기초반 과정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를 줘 지속적인 언어 학습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반기 방과 후 과정은 주중 2회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3월 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로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시, 공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2021년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다양한 체험중심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ifc.kr)를 방문하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리플렛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병무청장, 사회복지무원 복무현장 방문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은 22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지무원을 격려했다.

권대일 병무청장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병무청장은 김동원 총장과의 환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지무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으며, 사회복지무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무원의 복무현장을 찾아가 현장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무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병역문화 정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융복합 첨단소재 빅데이터 경진대회 입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제2회 융복합 첨단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경진대회'에서 도지사상, 전주시장상, 전주시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탄소신산업진흥협회와 전북대 LINC사업단 주관으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5개 대학 총 13개 팀이 출전했다.

산업공학과 김경은, 김현성, 배준희 팀은 탄소발열 파티션'을 주제로 도시사상을 받았고, 강원호, 이민지, 윤은지 팀은 탄소 융복합 농산물 쓰레기 건조' 주제로 전주시장상을, 김소라, 이나은, 황세민 팀은 '탄소발열의자'를 주제로 전주시의회장상을 받았다.

수상한 각 팀 학생들은 산업공학과 정호연 교수의 지도로 탄소 융복합 첨단소재의 다양한 분야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 탄소 소재의 장점인 고효율, 저유해의 특징을 활용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제품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경은 학생은 "섬세한 지도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조사 방법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